

대만 기업들의 최근 對중국 투자 현황 및 문제점

1. 개요

- 대만의 對중국 직접투자는 2003년부터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나 광동성 한 연구팀의 조사에 따르면 중국에 투자한 대만 기업의 90%이상이 비교적 성공적인 실적을 보이고 있음.

<표 1>대만의 對중국 직접투자(실행액 기준)

(단위: 억 달러, %)

	1997	1998	1999	2000	2001	2002	2003	2004	2005	2006 1~7
대만	32.89 (5.11)	29.20 (4.98)	22.97 (4.36)	25.99 (4.38)	29.80 (6.00)	39.71 (7.22)	33.77 (6.02)	31.17 (4.87)	22.00 (3.45)	11.49 (3.51)
중국의 전체 외국인직접투자	644.08	585.57	526.59	593.56	496.56	550.11	561.40	640.72	638.10	327.06

주: ()는 대만의 대중국 외국인직접투자가 중국의 전체 외국인직접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.

자료: 중국 상무부, 중경망

- 그러나 최근 중국 및 다국적 기업들과의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대만 기업들은 불합리한 산업구조, 불투명한 정치적 요인, 투자자금 조달 등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음.

2. 시기별 대만 기업의 중국 투자 과정

- 1990년대 이전 대만 기업의 중국투자는 비교적 소규모의 노동집약형 전통산업이 주류를 이룸.
 - 1990년대 초 등소평의 남순강화 이후 중국 투자 대만 기업 수가 급격히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노동집약형 산업에 집중됨.
- 1990년대 후반 대만 해협 미사일 발사사건의 영향으로 대만의 중국투자가 위축됐으나 투자이윤은 높은 수준을 유지했음.
- 1990년대 말 중국 투자 대만 기업의 경영실적이 크게 향상됨에 따라 중국 투자 열기가 고조되어 대만기업의 중국투자는 동관(东莞)을 중심으로 광둥 기타 지역으로 확산됨.
 - 특히 대만 당국의 “两头在内、中间在外(연구개발 및 판매는 내부에서, 생산 및 가공은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기업조직 형식)” 장려 및 대만 산업 업그레이드로 부동산 산업 및 과학기술 산업도 중국에 진출하기 시작함.
 - 그러나 한편으로 중국시장에서 외자기업이 점차 늘어나고 경쟁이 심해지는 가운데 동아시아 금융위기로 대만 기업들은 이전과 같은 공격적인 투자를 하지 못함.
- 2000년대 들어 중국내 기타지역의 점진적 개방으로 장강삼각주, 장쑤, 저장, 상하이 등이 양호한 생활환경 및 저렴한 노동력, 주강삼각주보다 유리한 투자 유치정책으로 자본을 유치하기 시작함.
 - 또한 외자기업 제품 내수판매가 개방됨에 따라 내수시장을 겨냥한 대만 기업들이 주강 삼각주에서 장강 삼각주로 북진하기 시작함.
- 이에 따라 대만 기업들은 주강삼각주, 장강삼각주에서 안정된 산업고리를 형성함. 2005

년 광동성의 신규 대만 자본 프로젝트는 600개 이상에 달하고 대만 자본 투자규모는 18억 달러를 넘어섬.

- 한편 2005년 광동 - 대만간 무역규모는 전년대비 10% 증가한 240억 달러를 기록함. 광동성 대만 사무관공실 통계에 따르면 이미 본격적인 경영 단계에 접어든 기업 가운데 이윤을 내는 기업의 비중이 90%를 넘어섬.

<표 2> 최근 10년간 주장 삼각주 대만기업 현황

도시	대만기업협회회원 기업 수	광동 대만기업분포 및 특색
동관	6000여개	IT등 하이테크분야가 1/4차지. 투자규모가 1,000억 달러 이상인 대만 기업 60여개.
심천	3900여개	대만 상장기업중 50여개 이상이 심천에 투자. 노동밀집형, 낮은 수준의 가공업에서 자본 및 기술집약적 산업과 운수, 증권 및 보험업으로 전환.
광주	2300여개	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변화. 노동집약적인 전통산업이 계속 발전함과 동시에 자본 및 기술집약적 산업으로도 변화. 전자정보산업, 금융, 물류산업이 급속히 발전.
해주	1200여개	1980년대와 90년대 초 의류가공과 양식업에서 92년 이후, 전자, 기계, 화공, 자동차 부품, 식품, 공예, 피혁, 부동산 등 20여개 업종으로 확대.
중산	1000여개	노동밀집형에서 IT, 화공, 의료기계등으로 발전.

3. 중국 투자 대만기업이 직면한 문제

가. 경쟁 심화

- 대만 기업들은 주로 저부가가치 제조업에 의존하고 있는 반면 자본, 기술 및 경영관리에 서 우월한 다국적 기업들의 중국 진출이 활발해짐에 따라 중소기업 위주인 대만 기업에 압력이 되고 있음.

- 또한 WTO 가입으로 인해 홍콩이나 대만 등 화교기업들에게 주어지던 특혜가 상대적으로 줄어들어 따라 기존 대만 기업들에게 불리하게 작용.

나. 산업구조조정

- 2003년 대만의 GDP 대비 서비스업 비중은 68%이며 이 가운데 금융보험업이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나 이들이 중국 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%에도 미치지 못함.
- 2004년 3월 대만은 “서비스업 발전강령 및 행동방안” 초안을 통과시키고 향후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을 발전시키겠다고 결정함.
- 동 초안에 따르면 대만은 우선적으로 건강보험시장과 채권시장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킬 것임.

다. 불투명한 정치전망

- 중국시장 개방으로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양안관계, 삼통(三通) 문제 등이 미해결됨에 따라 대만 기업들이 중국시장에서 선발주자로서의 우위를 상실할 가능성이 있음.

라. 투자자금 조달 문제

- 정책적 제한으로 인해 대만 기업들의 투자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있음. 초기에는 현금투자만이 허용되었으며 설비이전은 허가하지 않음.
- 이러한 현상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으며 주강삼각주, 장강삼각주의 대만 기업들은 중국 투자시 필요한 자금이 대만에서 기업 활동을 할 때보다 3~5배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짐.
- 초기 대만 기업은 투자 자금을 모두 현금으로 중국에 진입하였으며 이후 일부는 대만의

모기업이 자금을 조달함.

- 또한 대만 은행이 홍콩에 진출함에 따라 홍콩 금융기관은 대만 기업 용자의 주요 경로의 하나로 대두됨.
- 이와 함께 중국내 외자은행은 대만내 은행들이 담보신용장을 제출하면 중국내 은행들이 대만 기업에 대해 저당한도 대출액을 자금이 필요한 대만 기업들에게 제공하도록 함.
- 그러나 이러한 방법들은 복잡한 수속 절차를 거쳐야하기 때문에 중국 투자 대만기업들의 자금조달 어려움은 여전히 해소되지 못하고 있으며 문제 해결에도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됨.
- 자금조달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중국-대만 양측 금융업 간의 협력이 심도 있게 논의되고 있음.
- 2002년 이후 3차에 걸쳐 7개 대만 은행이 중국에 사무소를 설립하도록 허가받았으며 일부 대만 보험회사들도 연이어 중국내 사무소 설립을 허가받고 있음.
- 또한 2003년 동관 광정신용보증유한공사(东莞光正信用担保有限公司)가 설립되어 중국내 은행들이 대만 기업에 대한 보증을 제공하도록 함.
- 중국의 현행 정책에 따르면 은행들이 합법, 유효한 저당물권이 없는 상황에서 기업에 대출을 제공하는 것은 어려움.
- 이에 중국은 대만 기업들의 중국내 유관 금융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2005년 《타이완기업 국가개발은행 대출잠정방법(台资企业国家开发银行贷款暂行办法)》을 발표하였으며, 2005년 이후 중국 일부 지방은 대만 기업의 중국내 자금조달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.

- 광둥성은 중국에서 가장 먼저 대만 기업에 대한 대출을 시작한 지역으로 2006년 20억 위안, 5년 내 80억 위안을 대출할 예정임.

4. 산업별 대만의 對중국 투자 전망

- 2003년 대만의 <천하>잡지에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대만 1,000개 기업의 CEO중 56%가 이미 중국에 투자했고, 이 외에 25%가 향후 5년 내에 중국에 투자할 수 있다고 밝힘.
- 향후 대만의 중국 투자에서 전통산업, 하이테크산업, 금융보험업, 농업 등이 유망한 산업으로 전망됨.

가. 전통산업

- 현재 대만 경제에서 전통산업은 아직도 큰 비중을 차지함. 대만 내 노동력이 비싸짐에 따라 1980년대 말 ~ 90년대 초 대만은 중국의 저렴한 토지, 노동력, 원자재를 이용한 생산을 시작함.
- 대만 기업이 우세한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생산에서 판매까지 중국의 활용이 매우 중요한 상황임.
- 중국의 저렴한 생산비, 설비, 부품 등의 원자재는 대만 기업 생산비 절감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됨.

나. 하이테크산업

- 2003년 기준 대만 하이테크 상품 중 30%, 정보 및 하드웨어 상품의 40%(이 중 노트북의 46%)가 중국에서 생산됨.
- 하이테크 부문의 인재를 영입하기 위해 2002년 대만은 중국의 산업 과학기술인재 고용

비율을 10%에서 20%까지 늘릴 수 있도록 허용하였으며 중국에 투자하는 대만기업은 70%이상 중국에 R&D센터를 설립.

- 대만 기업의 중국내 R&D센터는 아직까지는 부분적인 기술적 개선을 시도하는 정도지만 양자간 과학 기술 협력의 시작을 알리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음.

다. 금융보험업

- 대만측 통계에 따르면 금융보험 및 부동산 산업은 제조업 다음으로 큰 산업이지만 대만 금융보험업의 중국 직접투자는 대만 기업 중국투자 산업 중에서 24위로 전체 투자 1%에도 못 미침.
- WTO가입 이후 중국의 금융보험업 개방속도가 가속화됨에 따라 대만 금융기관의 진출도 허용하고 있으며, 2005년까지 대만 자본 은행 2개, 은행 지점 7개, 증권회사 16개, 보험회사 지점 12개의 설립이 허가됨.
- 이에 따라 향후 대만 금융보험업의 중국 투자가 보다 활발해 질 것으로 전망됨.

라. 농업

- 대만의 對중국 무역수지는 전체적으로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나 농업은 적자를 보임. 중국 국무원 대만관공실은 2004년 양자간 농업 교역액이 4억 2,100만 달러를 기록한다고 밝힘.
- 대만 농산품의 높은 생산비, 경쟁력 부족으로 인해 중국의 전체 농산품 수입에서 대만이 차지하는 비중은 1%에 그침.
- 중국의 저렴한 원료, 노동력, 토지, 각종 세금 우대조치, 넓은 소비시장 등은 농업부문에 서 대만 기업들의 내륙 투자를 유도하는 요인으로 작용함.

- 대만 기업은 1987년부터 농작물 재배 및 양식, 식품가공업 등에 투자를 하고 있으며 현재 투자 범위는 농산물 생산에서 부대설비 투자, 가공 및 판매, 관광농업으로까지 확대되고 있음.

□ 특히 농업부문에서는 광동성에 투자가 집중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양 지역간 농업생산 환경이 비슷하며 광동성의 경우 풍부한 농수로망으로 인해 고기술 농업 발전에 유리하고, 녹색식품(유기농산물)과 화훼 등의 농산물 소비와 관광농업의 시장이 크기 때문임.

- 한편 대만은 농산품의 가공 및 수출과 소비측면에 비교 우위가 있다고 평가됨.

<참고 자료>

《21世纪经济报道》, “投资内地台企亟待产业升级 -内地台企生态报告”, 2006. 04. 23

中國經濟信息網(<http://newibe.cei.gov.cn>)

中國商務部 外資司(<http://www.fdi.gov.cn>)